

이라크 전쟁 중 미국이 직면할 불확실성

□ 미국, 첨단무기에 의한 단기전 계획

- 첨단무기로 무장한 미국은 “충격과 공포”(shock and awe)라 명명된 군사 작전을 통해 이라크 전력을 철저히 무력화시킬 것임. 미국은 초기 2~3일 간의 공습에서 800발의 크루즈미사일을 쏘아 부을 예정인데, 이는 지난 걸프전 당시 40일 동안 투하된 크루즈미사일의 두 배에 해당하는 물량임.
- 미국은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달 내에 이라크 군사력을 굴복시키고 후세인을 제거한다는 전략을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임.

□ 이 기간 중 미국이 직면하게 될 위험

- 그러나 후세인의 행동과 주변국들의 반응에 따라 미국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간단치 않은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음.
- 첫째, 후세인이 생화학무기나 다른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미·영 연합군의 대규모 인명피해 위험이 높아지는 것임. 그러나 이는 미국의 전쟁명분을 정당화시키고, 프랑스, 독일 등 전쟁에 반대했던 나라들이 미국 지지로 선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.
- 둘째, 후세인이 유전 방화를 저지르는 초토화작전을 구사하는 경우 미군은 작전수행에 큰 장애를 겪고, 전후 복구비용도 크게 늘어나게 될 것임.
- 셋째, 후세인이 이스라엘 공격에 나서는 경우 이스라엘의 대응에 따라 전쟁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임. 이스라엘이 적극 대응에 나선다면, 회교권 전체의 반발을 불러 미국은 난처한 상황에 몰리게 될 것임.

- 넷째, 이라크 북부지역에서 터키군이 쿠르드족과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, 미국은 자신의 우군인 두 세력을 통제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.

□ 군사작전상 위협

-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질 각종 군사작전은 다음과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임.

① 대규모 군사공격의 역효과

- 미 국방성이 밝힌 바에 의하면, 미군은 전쟁 초기에 하루 1,500개의 목표물을 공격할 것으로 보이는데, 이는 걸프전 당시에 비해 10배나 되는 것임.
- 또한, 걸프전에서 사용된 50만 톤의 폭탄 중 정밀유도폭탄은 약 8%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이번 전쟁에서는 그 비율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, 아울러 미국은 이번 전쟁도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각종 첨단무기들의 효과를 검증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임.
- 그러나 엄청난 화력을 집중시키는 과정에서 대량의 민간인 희생이 확인된다면, 미국은 또 한번 국제사회의 집중적인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임.

② 이라크군의 저항능력

- 미국은 전투보다는 대거 투항을 유도하여 이라크군을 무력화시킨다는 전제하에 속전속결 전략을 수립하였으며, 이를 위해 1,200만 장의 뼈라 살포 바스카 이레이오 투칸 하부괴오 드 데레... 실제로 전쟁 시작 전부터 전의를 상실한 이라크군의 대량투항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, 상당한 병력이 전투도 치르기 전에 투항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.

- 그러나 최정예부대로 알려진 수만 명의 공화국수비대와 특별수비대가 쉽게 항복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, 결국 최후의 전투는 바그다드 시가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예상치 못한 전력손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.

③ 미군 특수부대의 역할

- 미군 특수부대들은 중요 목표물 점령, 후세인과 핵심인사들의 체포·사살을 위한 작전에 이미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. 이들의 활동여부에 따라 전쟁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임.

책임연구원 고재호(☎3779-6663)
E-mail : kohjh@koreaexim.go.kr